# KC GREENHOLDINGS

2012 NEWS LETTER Vol. 34

## Contents

2012.06

• 세이셸 대통령 방문

・2차 경영설명회 ・서울시 환경상 수상



6



KC 전사 안전교육
 공시교육
 안성유리 중소기업 중앙회장상

안성-창립41주년 야유회
옥상파티
Morocco 수주
원자재 시장



8

• KC family Day



## [KC코트렐] 세이셸 대통령 방문

2012년 5월 15일,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서부에 있는 세이셸 공화국 대통령(James Alix Michel)이 KC코트렐 본사를 방문하 였다.

이번 미셀 대통령의 방문목적은 지난 2009년 공식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라디그 섬의 태양광 설비계획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리고 세이셸태양광 보급에 Michel 대통령은 KC코트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세이셸은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9만 명의 작은 국가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다양한 민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섬나라다. 작년 영국의 윌리엄 왕자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곳이기도 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나라로 GDP 절반 이상이 관광수입이며 상주인구의 2, 3배에 이르는 여행객들이 매년 세이셸을 찾는다고 하는 아름다운 휴양지 이다.



세이셸은 현재 약 100MW의 디젤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디젤을 점진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 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하여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 는 "Carbon Free" Community를 만들겠다는 것이 세이셸 정 부의 방침이고 이를 통해 세이셸을 지구촌의 대표적인 친환 경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세이셸 정부의 목표다.

#### 15일 오전,

세이셸의 Dr. Rolph Payet 환경 및 에너지 부 장관과 Ms. Janosevic 대통령 공보비서가 본사를 방문하여 세이셸의 태양광 보급사업 협력과 관련한 세부적인 협의를 가졌다.

이 미팅에서 세이셀정부가 각각 20만 달러씩 투자를 하여 세이셸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라디그(La Digue)섬에 태양광, 소형 전기차 및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경우, 세이셸 전역에 태양광 및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을 세이셸과 당사가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세이셸의 고급 휴양지 및 주택,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KC코트렐 이태영사장, 제임스 미셸 대통령, 강태일 전무(오른쪽부터)

이와 별도로 KC 솔라에너지에서 한국 전기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와 세이셸에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적용 및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 기로 하였다. 세이셸의 시범사업에는 KC 솔라에너지와 전기연구원이 KOTRA 해외 태양광사업 타당성조사 8 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후편. 세이셸 현지 신문 기사 발췌

## Seychelles NATION 지 보도기사

대통령 한국 방문,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세이셸의 Top 일간지 <NATION>지의 2012년5월19일자 보도 내용이다. 전면에 제임스 미셸 세이셸 대통령과 조충훈 순천시장, 필립르갈 주중 세이셸 대사, 정동창 세이셸 명예총영사가 첫면을 장식했다. NATION 지는 보도에서 "제임스 미셸 세이셸 대통령의이번 한국 방문은 양국 간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유해물질 방출 감소 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했다. 미셸 대통령의이번 한국 방문은 2009년 한국 초청 공식방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는 친서를 통해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동창 주한세이셸 명예총영사의 노고를 치하하셨다.

#### NATION지 2012년5월19일자 전면

2면 전면에 걸쳐 보도한 세이셸 대통령 방한 관련 기사 (12, 13면) (12면) 여수 엑스포 개막식과 세이셸 전시관 등 엑스포 참관, 선암사 방문(13면) 조충훈 순천 시장과 함께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중동 송응엽 국장과 함께 / KC코트렐 이태영사장, 제임스 미셸 대통령, 강태일 전무 와 함께...

#### <기사 중 발췌>

이번 방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KC코트렐이 제안한 라디그섬의 태양광설비 프로젝트이다. 이는 미셸 대통령의 2009년 한국 공식 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제이기도 하다. 그들은 또한 세이셸의 숙박 및 주택 시설에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임스 미셸 대통령과 수행단은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인도양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여 2012여수엑스포의 개막식 행사에 참가하였다. 세이셸 여수 전시관은 세이셸의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희귀 동식물, 세이셸이 환경과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기 위하여 쏟는 노력 등을 주제로전시되어 있다. 세이셸은 여수엑스포 운영 위원회의 일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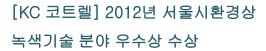
미셸 대통령은 또한 자연의 도시 순천 조충훈 시장의 초청으로 숚천시를 방문하였다. 전통 한국식으로 환영식 이뤄 졌으며, 세계 5대 습지 중에 하나인 순천만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에코 도시"를 위하여 순천과 세이셸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을 두 지역의 기술, 문화 교류뿐 아니라 자매결연을 통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세이셸의 성공적인 환경 보전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축의를 표했다.





#### [KC 코트렐] 2012년 2차 경영설명회 개최

5월 21일, 본사 지하 강당에서 2차 경영설명회가 열렸다. 2012 년 1분기 경영실적 브리핑 그리고 2분기 경영계획 및 추진목표를 살펴보며 금년 4000억 목표에 따른 현 위치를 분석,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중점적으로 고객과 시장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시장에 인식, 또한 효과적으로 해외법인 외의 외부협업체계를 구축, 기술과 인재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1분기 수주 액은 760억으로 2012년 수주목표대비 17%를, 매출액은 518억으로 목표대비 12%, 영업이익은 1억 원으로목표대비 0.5%를 달성하였다.



지난 2012년 06월 05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개최된 '서울시 환경의 날 기념 환경마당'에서 KC코트렐이 녹색기술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2011년 8월 태양광 사업팀에서 서남재생물류센터 하수처리장에 수도권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와 그린홈 보급에 참여한 것을 인정 받아, 태양광업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게된 것이다. 시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하였으며, 서동영 부사장이 대표로 수상을 하였다. 서울시 환경의 날 행사는 199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으며, 녹색기술 분야, 에너지절약 분야, 환경보전분야, 조경생태분야, 푸른 마을 분야 등 총 5개분야에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 사진1. 상패

사진2.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 사진3. 수상하는 KC코트렐 서동영부사장 (왼쪽4번째)











## [KC코트렐] 전사 안전교육 및 공시교육

6월4일, 전사 안전교육이 본사 지하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강의는 기계안전기술사이자 현 서울산업대 안전 공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한규원 교수가 맡아 사고방지 예방법 외의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6월 21일에는 기업공시제도교육이 있었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신속, 정확, 공평하게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만큼 임직원들에게 주의항목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본사에서 상장회사협의회 윤정재 파트장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공시제도의 주요사항 보고, 공시내용에 따른 부류 및 공정 공시, 증권에 관한 사항 등을다루며 전문적으로 주식시장을 다루기 위하여 교육되었다.

## [안성유리공업] 중소기업 중앙회장상 수상

지난 5월 21일 안성유리 오자영 생산 팀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한 대 전충남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인 및 근 로자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24회 중소 기업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수상기념 촬영 오자영팀장 (좌측에서 네 번째 )

## [안성유리공업] 창립41주년 기념 야유회

안성유리는 지난 5월 10일, 17일, 24일 3차에 걸쳐 천안 태조산 공원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야유회를 가졌다.

이번 야유회는 안성유리 임직원 118명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직원간의 친목도모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하여, 산행, 게임, 레크레이션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단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안성유리 임직원들은 이번 야유회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고 직원들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좋은 기회가 되었 다고 소감을 밝혔다.







▲ 좌측부터 1차, 2차, 3차 야유회 단체기념사진













▲ 태조산 산행 및 팀별게임, 시상식 기념

## [KC코트렐]옥상파티

KC코트렐은 이례적으로 불시 파티를 이맘때쯤 진행한다. 바로, KC 옥상파티다.

전통적으로 '번개모임 -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남'을 추구했지만 금번 년도는 지식경영 TF 주관으로 '테마'를 갖고 공개적인 파티를 열었다. KC 코트렐 본사 옥상은 작은 정원으로 전 직원이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전 직원의 참여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경영TF(K-ONE)의자체 퀴즈, 그리고 상품 그리고 만찬이 KC 관계사 외 자회사직원들을 하나로 모으기 충분했다는 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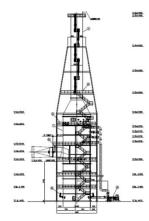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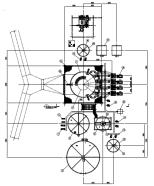




## [KC코트렐] Morocco 인산 추출 공정 수주

KC코트렐은 인산추출 공정(Phosphate Flash Dryer)을 FLSmidth와 체결하여 모로코수주를 체결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규모는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FLSmidth A/S를 통한 첫 수주로 의미가 있으며 8개월 납품을 이루어 2012년 12월, 모로코 인광석공사(OCP S.A)에 수주를 완공 할 예정이다. 비료. 세척. 광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인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모로코는 현재 미국, 러시아에 이어 생산량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광석 자원을 바탕으로 화학비료 플랜트를 포함한 인광석 가공 설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의 인광석 가공 프로젝트는 모로코의 항만도시 카사블랑카에서 남서쪽으로 140km 지점에 위치한 조르프라스파의 산업단지에 인광석 및 비료 수송용 벨트컨베

140km 시점에 위치한 소트프라스파의 산업단시에 인광적 및 미료 구종용 벨트컨베이어를 11km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것이다. 당사 해외사업부에서는 프로젝트팀을 구축하여 5월 초 FLSmidth사를 방문, 설계, 기자재 공급, 설치 공사 등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FLSmidth와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예고하며 모로코 수주를 진행 중에 있다.





#### [열연] 가격 상승 덜커덕·환율이 최대 변수

- 추가 가격 상승 동력 약해..가격 상승 쉽지 않을 듯
- 3주 연속 횡보..환율 하락시 시중가격 악영향

[스틸데일리 06월02일]

열연 가격의 추가 상승이 버거워 보인다. 금주 열연 유통가격은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째 가격이 횡보세다. 오히려 저가품이 다소 늘어나고 있어 추가 상승이 어려워 보인다. 포스코산의 경우 톤당 86만원~87만원(수도권 도착 어음 시트), 현대제철산과 동부제철산은 톤당 85~86만원 수준에 거래 중이다. 일부 국산 저가품의 경우 거래가격대보다 톤당 약 1만원 정도 낮은 거래가격도 있다. 유통업체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선 현거래가격보다 톤당 1만원 가량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야 하지만수요 부진과 판매 경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 유통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산도 역시 가격 상승이 버겁다. 금주 거래가격은 톤당 79만원~80만원 수준이다. 국산과 가격차이가 5만원 이상이다. 중국산 유통량이 적어 국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 적은 재고에도불구하고 중국산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원/달러 상승으로 역시 가격 상승이 버거워 보인다.

#### [냉연] 2분기 실적, 확실한 개선 -[스틸데일리 04월04일] 판매 및 가격동향

냉연사들의 경영실적은 2분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5월, 6월로 갈수록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판매가 매월 증가추세이다. 1분기 대비 2분기 판매가격은 2만원수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컬러강판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 나머지 도금재들도 소폭의 할인축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2분기는 1분기 바닥을 찍고 나아졌다 하는 정도이지, 호황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다. 냉연사들은 하반기를 더욱 기대하는 모습이다.

#### 1. 유통가격 동향

냉연도금재 유통가격은 여전히 변동없는 모습이다.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수입산의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스코산 CR 유통가격은 Kg당 1,040원 수준이며 산세강판(PO)은 980원 수준이다. 용용아연도금강판(GI)과 전기아연도금강판(EGI) 유통가격은 1,120~1,160원 수준이며,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판매가격은 1,040원 수준이다. 냉연3사의 CR 유통가격은 1,040원, 산세강판은 950원, GI와 EGI는 1,100~1,130원, HGI는 1,020~1,040원 수준이다. 중국산 GI 유통가격은 930원, CR도 930원 수준이다. 현재 이 가격으로 국내산에서는 마진이 거의 나지 않고 있다.

#### 2. 유통재고

성수기지만 성수기를 느낄 수 없는 6월에도 높은 재고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포스코 냉연SSC들은 업체별 차이가 있지만 2.5개월에서 3개월 치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당분간 시황회복 기미가 안보여 유통재고가 줄어들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 5월 5주 냉연도금재 유통가격

단위: Kq/원, 현금가, 코일가격 기준

21111372722217					
품목	규격	포스코제품		냉연3사	
		공장도	판매점	공장도	판매점
CR	1.2mm	1180	1040	1180	1040
PO	4.5mm	1110	980	1110	920~980
GI	1.2mm	1280	1120~1160	1280	1100~1130
EGI	1.0mm	1290	1120~1150	1290	1100~1130
HGI	2.3mm	1230	1040	1230	1040



#### [STS]STS 대형유통, 6월 판매가격 유지 '총력'

## - 304 열연 3,100원 304 냉연 3,200원대에서 간신히 턱걸이 6월에도 판매개선 기대감은 낮아

[스틸데일리 06월05일]

6월 초 스테인리스 유통시장의 분위기는 5월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 라진 점은 없는 모습이다. 다만, 월말에 일부 기승을 부렸던 저가재는 일단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가 리스트를 조정하고 출 하가격은 동결한 이후 일부 수요업체들의 가격인하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 코일센터들을 비롯하여 대형 유통상들은 매입단가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을 고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유통업체들의 월마감이 마무리되면서 월초부터 무 리하게 판매를 늘리기 위한 할인 판매는 자제하려는 분위기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문제로 잦은 할인을 지양하겠다는 움 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첫째주 304 열연의 유통가격은 kg당 3,100원대 수준, 304 냉연의 유통가격은 kg당 3,200원대 수준인 것 으로 관련업계는 전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5월 말 가격을 낮게 제 시하거나 물량할인을적용해주는 일은 많이 사그러진 상태라고 설명 했다. 대다수의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형성된 가격이 원가상으 로는 바닥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폭 내려갈 가능성도 있 을 것으로는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업계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라 업체 간 판매경쟁이나 메이 커들의 수급조절만 잘 이뤄진다면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 KC FAMILY DAY

2012년 6월 8일, 노조 창립 13주년을 맞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노동 조합과 지원팀 주관 하에 전체 임직원 체육대회를 가졌다. 본사에서 12시 일 괄 버스로 안성으로 이동하여 2시부터 기념식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족구시합, 배구, 출발 드림팀, MISS KC선발 등 다채로운 순서로 온 직원의 화합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仄
           이 상
                 민
                      팀
                         장
         업
                 김
제
      사
           부
                    규
                      백
                            사 원
기
   획
      팀
           윤
             제
                 연
                      대 리
         업 부
                 김
                    재 수
해
   외
      사
                            선
                               임
과
   김
      팀
           01
              정
                 식
                      과
                         장
           문
              택
                   상
임
   원
        정
                      무
   김
관
      팀
           최
                 관
                      차
                         장
              성
                     대 리
      팀
기
   획
           여
              주
                 희
  무
                            주
                               임
재
      관
         리 팀
                 홍
                    세 라
      팀
              정
                      부 장
관 리
                 철
   술
      仄
            팀
                 홍
                    정
                       희
                            팀
                               장
기
         원
                 염
                    동
                            법
                               인
                                  장
베
   트
         仄
           사
                      균
   무
           김
업
      팀
              유
                 화
                      사
                         원
과
   김
      팀
           조
              은
                 주
                      차
                         장
      팀
           01
                 한
                      사
                         원
丌
   워
              상
업
   무
                      차 장
      팀
           정
                 순
              행
HO
  너
      仄
              01
                 유
                         사
                            원
         아
                    배
                 정
仄
   원
      팀
              수
                      과
                         장
재
   경
      팀
           01
              강
                 호
                      사
                         원
   략
         매 팀
                 정
                      정
                            사 원
전
      구
                    희
           하
              혜
                 진
                      사 원
丌
   원
      팀
```

# KC NEWSLETTER

Editing Team

